국헌공 권칙權 에 관한 실기자료 【8】

작품 해설

강姜씨는 조선의 번성한 성씨요 노虜는 오랑캐를 이른다. 강씨 가문은 이름난 문사와 빛나는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이다. 그 중엽 이래 강사상姜士尙과 강신姜紳 부자가 잇달아 급제해 재상에 이르고 강신의 아들 강홍립姜弘立은 부조의 뒤를 이어 문학의 재능을 품고 선조 정유丁酉(1597년)에 알성급제謁聖及弟를 하여 시종신侍從臣으로 출입하다 폐조廢朝(광해군의 조정)에서도 관운을 유지하고 또한 무예의 재능도 겸하여 함경咸鏡의 남도병마사南道兵馬使로 나가 성적이 있어 장수와 재상으로서 간국幹國의 인물로 촉망되었다.

만력萬曆(명 신종) 무오戊午(1518년)에 만주滿洲 건주建州의 후금後金 오랑캐가 명明에 대한 원한을 빌미로 군사를 일으켜 변란하니 요동遼東의 여러 진이 함몰되고 천자天子가 노해 이를 토벌하며 조선에, 임진왜란시 경략經略 양호楊鎬를 보내 왜군을 물리쳐준 바에 대한 보답으로, 원병을 내 협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에서 정예군 2만을 모아 요동에 보낼 즈음 그 사령관인 도원수都元帥의 임무를 맡을 자를 찾는데 모두가 문무文武의 위망威望이 있는 자로 강홍립을 지목하므로 그를 원수로 발탁하고 평안도병마사 김경서金景瑞를 부원수로 삼았다.

강홍립이 이해 8월에 출동하면서 80이 넘은 노모 정鄭씨에게 하직하니 노모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받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책임은 오로지 네게 있다. 지금 막중한 직임을 받았는데 네가 만일 이름값을 못하면 나라를 저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집안 명성까지 무너진다. 네 아우 홍적弘勣이 장년이고 앞날을 도모할만하니 너는 어미가 늙었다 하여 다른 마음을 두지 말라. 송동래宋東萊(임란초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가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다고 한 말이야말로 정녕 따를 바로다' 하여 영결을 고했다.

조선군이 요동으로 가고자 대동강大同江을 건널 때 만주에서의 싸움은 소강으로 이어졌다. 관서는 번화한 곳인데 원수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주연을 벌이고 군무를 등한히 하였다. 이에 종사관 이민환李民

이 기회를 보다 '우리가 지경 안의 오랑캐를 소탕하라는 명을 받고 나와 마땅히 할 바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군사를 분발시키는 일일진대, 어찌 천연하여 전진하지 않으며 실없는 말씀과 술로 시일을 보내십니까' 하였으나 강홍립은 태연히 '그대는 항우項羽의 용맹이 없고 내 또한 경자관군卿子冠軍 송의宋義가 아니니, 어찌 부장副將 항우가 주장 송의를 벤 장막안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겠는가. 무릇 완급이 있어야 하거늘 밀지密旨가 내게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 하였다. 이에 이민환이 놀라 '밀지라 하시니 무슨 일에 관한 것입니까. 상세히 듣잡고자 합니다' 하고 물으니 강홍립이 '때가 되면 볼 것이니 긴 말은 말자' 하므로 되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진중의 장졸은 모두 머리칼이 관을 추킬만큼 노하며 '우리가 몸을 던져 싸우러 가는 마당에 주장이 밀지나 핑계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군사를 일으켰으면 적을 정벌하라는 밀지는 있을지언정 대관절 싸우지 말라는 밀지도 있단 말인가' 하고 분개하니 이민환이 '주장의 뜻은 헤아릴 수 없다. 함부로 선동하면 사기에 불리하니 참고 결말을 기다리라' 하였다.

선천宣川군수 김응하金應河는 강홍립에게 반드시 싸우려는 의지가 없음을 알고 한 부대를 떼어 맡겨주기를 청하니 강홍립이 이를 허락하고 5천 군사를 주어 좌영左營이라 이름하고 그 선봉先鋒을 삼았다. 또 운산雲山군수 이일원李一元을 우영장右營將으로 삼고 강홍립과 김경서는 주력부대로 중영中營이 되어 의주로 나아갔다.

기미년己未年(광해군 11, 1609) 2월 25일에 영마전暻馬田이라는 곳에서 명군과 조선군이 합류키로 하였다. 강홍립은 의주의 통군정統軍亭에서 건장한 군마는 골라서 후군을 삼고 쇠약한 군마를 전군으로 하여 몸소 통솔해 나갔다. 여러 장수가 한결같이 '군졸과 말이 건장해야 적을 짓쳐 전진할 수 있거늘 쇠약한 군사와 말을 앞세워 어쩌시렵니까' 하고 입을 모았으나 강홍립은 '밀지가 내게 있으니 그대들은 걱정 말라' 하고 마이동풍이었다. 기일에 김응하의 좌영군이 먼저 영마전에 도착해 보니 유도독劉都督(유정劉綎)의 명군은 이미 모여 대오를 정비하고 있으면서 조선군이 느린 것을 걱정했는데 김응하의 씩씩한 모습과 그 휘하 군사의 위용을 보고는 유도독이 '동방東方에 이처럼 뛰어난 장수가 있거늘 제하諸夏(중국)에는 없구나' 하고 탄식했다. 저물게 강홍립이 도달하자 유도독은 밤중에 강홍립을 장막으로 초치해서 전략을 의논했다. 강홍립이 말했다.

"군량은 뒤에 있고 병사는 주렸으니 머물러 있으면서 군량을 기다릴 형세입니다. 오랑캐의 지형이 험하여 척후로 적정을 살피기 어렵고 아군이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고립되어 들어가기는 쉽되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군이 모두 합류하였으니 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 출병 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주저하지 말고 속히 진격해야 하지 않겠소?"

유도독이 이렇게 말했으나 강홍립이 끝내 대답을 않고 물러나오자 유도독이 성내며 '조선의 사람쓰는 것이 저러하니 무엇을 기대하랴. 영웅이 눈앞에 있거늘 교활한 소인을 도원수로 삼아, 도착하여 한다는 소리가 머물자는 계책이란 말인가' 하였는데 영웅이란 김응하를 가리킴이었다.

행군을 시작한 지 3일이 되어서야 우모령牛毛嶺에 도착했는데 강홍립이 유도독에 항의해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하였다. 명의 교유격喬遊擊(교일기喬一琦)이 유도독에게 '조선군은 군량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을 움츠리고 핑계만 대니 그 마음이 괘씸합니다' 하고 마침내 칼을 뽑아 강홍립에게 출발을 재촉하고 조선의 장수들도 '군량이 있는데도 매번 떨어졌다면서 도독의 화를 돋우니 무슨 의도냐'고 따졌다. 강홍립이 '밀지가 내게 있으니 때가 되면 알 수 있다' 하니 제장이 '그 밀지는 오로지 물러나 움츠리라는 것입니까. 속시원히 펼쳐보여 장졸의 의심을 풀어주시오' 하고 재촉하니 강홍립은 며칠을 더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강홍립은 곧 여진 통사通事 하서국河瑞國 등 3인을 몰래 건주建州로 보내 노추虜酋(누르하치)에게 조선과 후금 '양국은 본래 원수진 일이 없고 지금 출병은 남조南朝(명)의 재촉에 의한 것이니 양군이 마주치더라도 병기를 사용치 말고 강화講和라도 맺을 수 있게 하자'는 말을 전하게 하고 봉서 한 통을 주어 보냈다. 하서국 등이 건주에 들어가 누르하치奴兒哈赤의 아들 귀영가貴盈歌를 만나 봉서를 전했고 이 봉서를 받아 뜯어본 노추는 손으로 자기 이마를 쳤다.

"어찌 천운이 아니랴! 남조南朝가 네 길로 공격해와도 세 길은 근심치 않았으나 오직 이 한 길이 걱정이었다. 남조를 돕는 김태석金苔石과 백양고白羊古 두 추장은 채찍쳐 꺾으면 그만이지만 무리가 두려운 것은 조선군의 협격이었다. 일찍이 단조丹朝(거란)가 10만 정예를 끌고 들어갔다가 수레 한 대도 돌아오지 못했거니와, 조선군은 날래고 병기도 날카로워 대적이 어려운데 저들이 스스로 항서降書를 보내왔으니 어찌 하늘이 우리로 하여금 선금先金이 남긴 공적을 다시 잇게 함이 아니겠는가."

노추는 즉석에서 귀영가에게 철기병鐵騎兵 3만을 주어 남군南軍(명군)을 먼저 치고 조선군의 항복을 받으라 하였다. 강홍립은 유도독의 독촉으로 행군하여 마가채馬家寨에 도착해서야 출몰하는 적의 모습을 맞게 되었다. 강홍립은 싸우려는 장졸에게 천병天兵(명군)과 함께 싸움터에 뒤섞이면 적의 수급首級을 다투다 서로 죽일 우려가 있으니 모두 유리한 기회를 엿보며 나가지 말라 이르고 만약 하나의 오랑캐라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엄명했다. 모든 장졸이 낯빛을 잃으면서 주장의 의중을 이제야 알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하였으나 좌영군의 김응하는 이에 불복하며 '전장에서는 왕명도 오히려 받지 말라 했거늘 적과 마주쳐 칼을 거두라는 명을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하고 마가채에서 심하深河까지 이르는 4,50리 사이에서 명군과 함께 적을 섬멸하고 목벤 것이 많았다. 강홍립은 또 군량 타령으로 전진을 안했다. 유도독이 적진에 비축한 군량이 매우 많으니 이를 빼앗아 쓰자고 해도 듣지 않고 강홍립은 하루씩 천연하기만 했다.

3월 4일 날이 밝자 유도독은 대포를 세 번 쏘고 총진격을 명했다. 교유격、가부총江副摠、조참군祖參軍이 선두가 되고 유도독이 뒤를, 장독사張督司가 그 뒤를 이었다. 김응하가 분연히 일어나 나가니 강홍립도 뒤쫓아 따랐다. 20리를 행군해 부차富車 지면地面(요새)에 닿으니 산기슭에 즐비한 촌락이 보이고 명군이 괴성을 지르며 흩어져 부락으로 달려가 약탈을 자행하느라 대오가 없어졌다. 이때 산골짜기에 매복했던 귀영가의 3만 철기병이 쏟아져나오자 명군은 일시에 붕괴되었다.

김응하군은 소수로 적군과 굳건히 맞서며 강홍립에게 급히 구원하기를 청했다. 강홍립은 이를 책망하여 '그대는 명을 듣지 않았으니 목을 베어야 마땅하거늘 어찌 구원을 바라느냐' 하고 중군과 우영군을 합병해 산상으로 올라 진치고는 승부나는 것을 관망했다. 잠시후 교유격이 10여명을 이끌고 패주해 중군에 와서 명군이 다 죽었다고 했고, 김응하군은 적과 장렬한 혈전을 벌여 피아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사했다. 전투를 끝낸 귀영가는 혀를 두르며 '내가 막북漠北(사막 북쪽 외몽고)을 횡행하되 소향所向에 무적無敵이더니 조선인이 날래고 사나운 게 이같을 줄은 요량치 못했다. 만약 산정山頂의 군사로 하여금 일제히 합전合戰케 했더라면 우리가 적을 맞아 남을 무리가 없을 뻔했다' 하고 산기슭으로 진영을 옮기고는 통사를 보내 강홍립을 불렀다.

강홍립이 군관 박동명朴東明을 보내 강화講和를 시행케 하니 귀영가가 대장이 오지 않으면 안된다 했다. 강홍립이 다시 부원수 김경서를 보냈는데 김경서가 화회和會를 약속하고 돌아와 강홍립에게 보했다. '지금 호진胡陣은 병졸이 지치고 다친 자가 태반인데 저들 풍속에 말은 쇠우리에 가두고 사람은 가죽 침낭에 들어 자니 야습을 하면 몽둥이질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잔한 천병天兵(명군)을 모으면 족히 일만은 될 터이니 앞뒤로 치면 승산이 커 위세를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건의했으나 강홍립은 '서툰 계책으로 범의 굴에 들어가면 이는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 이라면서 듣지 않았다.

다음날 강홍립이 몸소 적에게 가려고 하자 장졸이 모두 옷자락을 잡고 발을 구르며 '사또는 어딘데 가려고 하느냐' 하였으나 강홍립은 발을 멈추고 '교유격의 군사 10여인이 우리 진에 있으니 오랑캐가 알면 강화에 해롭겠다' 하고 그 일행을 묶어 적진에 보내라 했다. 교유격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조선이 예와 의를 숭상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왕인王人(명나라 군사)을 결박해 오랑캐에게 보내는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하고 비단을 찢어 집에 보내는 글을 써 옷띠에 매고 칼에 엎더져 자결했다.

강홍립이 귀영가의 진에 가서는 그 삼엄한 위용에 놀라 무릎걸음으로 기어가서는 한 목숨을 빌었다. 귀영가가 높은 모전毛氈 장막의 앉은 자리에서 내려와 강홍립을 부축해 일으키며 '두려워 마시오. 여기서 건주는 50리가 못되고 그곳에 가 만주滿住(누르하치)를 뵈면 약속을 뇌정牢定할 테니 거느린 군사를 이끌고 즉시 하산하시오' 하였다. 강홍립이 군사를 하산시켜 무장을 해제케 하니 그 풀어 쌓은 병기가 산을 이뤘다. 호인胡人이 철기로 에워싸고 건주로 이동하니 도중에 격분하여 골짜기로 떨어져 죽는 자가 속출했다. 만